



재미있는 골프 상식 ... 골프 스코어 용어의 유래

보기, 파,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 이 단어들은 골프 스코어를 뜻하는 단어들이다. 그 중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는 새의 종류를 뜻하는 단어를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 골프 스코어에는 언제부터 이런 이름들이 붙여지게 된 걸까?

■ 보기 (Bogey)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골프 스코어 용어 중 가장 먼저 골퍼들 사이에 자리잡은 것이 보기(Bogey)이다. 초창기에는 골프장마다 홀 수도 다르고 길이나 난이도 등도 천차만별이어서 특별한 스코어 기준도 없었다. 그러다가 1890년 영국 코벤트리 골퍼클럽의 총무로 일했던 휴 로더햄이라는 사람이 각 홀의 기준 타수를 정하면 좋겠다고 제의해서 타수를 정한 뒤 이를 '그라운드 스코어(Ground Score)' 라고 불렀다. 지금 개념으로 하면 파(Par)를 정한 셈이다.

그런데 그라운드 스코어를 기록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골퍼들이 이 스코어를 당시 유행했던 '보기 맨(The Bogey Man)' 이라는 노래에 빗대 '보기 스코어(Bogey score)'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보기 맨은 어둠 속으로만 숨어 다니며 못된 어린아이를 잡아간다는 귀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래에서 보기 맨은 '잡을 테면 잡아봐(catch me, if you can)' 라고 말해 마치 그라운드 스코어가 골퍼들을 놀리는 듯한 느낌을 줬다. 다시 말해서 보기 스코어는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스코어, 기준 스코어, 즉 현재의 파(Par)의 개념으로 쓰였던 셈이다.

■ 파 (Par)

파(Par)라는 말은 사실 보기보다 먼저 등장했다. 1870년 AH 돌만이라는 영국의 골퍼기자가 데이비드 스트라스와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프로골퍼에게 '디 오픈(브리티시오픈)' 우승 예상 스코어를 물었고, 그 둘은 당시 대회장이었던 프레스윅의 12홀 코스에서 49타를 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돌만이 주식시장에

서 사용하는 '액면가(Par Figure)' 의 개념을 빌려 49타를 '프레스윅의 파(Par for Prestwick)' 라고 이름 붙였고, 후에 영 톰 모리스가 3라운드 결과 2타 오버파(2 stroke over par) 로 우승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가 쓴 '파' 라는 용어는 유행되지 못했고, 그 사이 등장한 '보기' 가 더욱 널리 알려져 기준 타수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다.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서 쓰는 딱딱한 용어보다 노래 말에 등장하는 보기 맨이 사람들에게 더 익숙했던 것 같다.

※ '파' 와 '보기' 의 개념이 오늘날과 같이 나뉘게 된 것은 골프클럽과 기술의 발전 때문이었다. 골프가 영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성능 좋은 골프채가 속속 등장해 스코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맞춰 미국 골프협회는 각 홀 별 기준 타수와 평균 거리 등을 조정했지만 영국에서는 보수적인 클럽들이 각기 이미 정해 둔 '보기 스코어' 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프로골퍼들은 점점 '보기 스코어' 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프로골퍼 정도의 실력자들이 기록하는 새로운 기준 스코어의 개념으로 '파' 가 자리잡았던 것이다. 미국 골프협회는 1911년 '정상적인 날씨에 매 홀 2퍼팅하며 흠 없이 플레이한 스코어' 라고 '파' 를 정의했으며 이를 결정하는 기준 거리를 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보기가 파에게 기준타수의 개념을 내어주고 1타 많은 스코어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 버디 (Birdie)

기준 타수보다 한 타수 적은 점수인 버디 (Birdie)는 작은 새를 뜻하는 말로 1899년 미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아틸란틱 골퍼클럽에서 포섬 매치가 진행되던 중 Ab smith라는 선수가 샷을 했는데 홀로부터 6인치 가량 붙었다. 이 때 그가 "That was a bird of a shot!" 이라고 외쳤다. 당시 bird는 wonderful, excellent의 뜻을 담고 있었다. 결국 그는 파보다 한 스트로크 적은 타수로 홀을 마쳤고, 그 다음부터 이와 같은 스코어가 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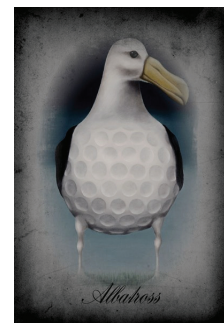
면 이를 "버디" 라 부르게 되었다.

■ 이글 (Eagle)

기준 타수보다 두 타수 적게 돌아온 한 점수인 이글 (Eagle)은 말 그대로 독수리를 뜻한다. 정확하고 빠른 새의 대명사인 독수리처럼 더 정확하게 멀리 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글이라는 용어가 붙여지게 되었다. 이글의 유래에 대한 설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1930년에는 2언더파를 '빅 버드' 라고 했다. 1언더파가 버디 즉 작은 새인 만큼, 2언더파는 큰 새(빅 버드)라는 것인데 당시에는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무렵 뉴욕타임즈의 스포츠란에는 이런 기사가 실린다. "조지 엘름의 제2타가 창공을 날아 핀 근처에 낙하했다. 이글이 가능한 위치였다. 하지만 그는 9피트의 퍼팅을 실패해 이글을 하지 못해 천추의 한을 남겼다." 이것이 '이글' 이 처음 활자화된 것으로, 그 이후부터 '이글' 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 알바트로스 (Albatross)



한 홀에서 기준 타수보다 3타수 적게 돌아온 한 점수인 알바트로스는 1922년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22년 제1회 영국과 미국의 골프대항전이 열렸을 때, 경기가 시작되기 전 영국 팀의 주장 시릴 트레이가 미국팀의 바비 존슨에게 "만일 이 대회에서 파보다 3타 적은 스코어가 나오면 내가 그 스코어에 이름을 붙이기로 하자." 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존슨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볍게 생각하고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트레이가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흥분한 트레이가 그 순간 떠올린 것이 바로 '알바트로스' 라는 환상의 새였고, 이렇게 해서 알바트로스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Brows Touch

Permanent make up

★ 눈썹전문 ★ 3D 눈썹 ★ 콤보 눈썹 ★ 남자 눈썹

EYEBROW

- 눈썹이 적거나 또렷하지 못한 분
- 양쪽 눈썹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분
- 눈썹이 부분적으로 없는 분
- 눈썹 그리기 자신 없는 분

EYELINE

- 속눈썹 라인이 또렷하지 못한 분
- 펜슬을 그리면 잘 번지는 분
- 눈이 커보이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원하시는 분



★ 스킨케어 : 개인별 맞춤 패키지
일반/스페셜 스킨케어

★ 골프나 야외활동으로 생긴
Aging Spot/검버섯/쥐젖제거



Before / **After**

전화 예약 필수

Artesia 시온마켓 몰내
13343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Brows Touch T.213.948.1140